

무용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유 학 자* · 유 엔 드**

Abstract

A Study on Sociality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s Student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of Dance Education

Yoo, Hak-ja (KongJu National University)

Yu End (DaejeonBongSan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sociality development of elementary students. To attain the goal of this study,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two different groups; one group including 3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City that has been learned a dance through their school curriculums was selected, the other group including 3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City that has not been learned a dance though their school curriculums was selected. The questionnaire for measuring the sociality development which had originally been made by Scott (1965) was used. The components of sociality development are patience, concentration, self-control, attitude and partnership, and each question items were measured by 5 point Likert-type Scales. Frequency Analysis, Crosstabs Analysi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done by the social scientific statistical package SPSS 8.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p<.01$, $p<.05$) in four components of sociality development; patience, self-control, attitude and partnership, except only concentration item between two groups; one group was educated a dance in their school, the other group not. It means that the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ity development of elementary students.

Seco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p<.01$, $p<.05$) in patience, self-control,

* 공주대학교 무용과 교수

** 대전봉산초등학교 교사

attitude and partnership items except only concentration item between two groups; one group interested in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e other not. It means that the more interest students have in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e higher level of sociality development students have.

Third, there are no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oci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gender and grade of elementary students.

Consequently, this study proved that a danc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s had a positive effect on promoting the sociality development for elementary students. Therefore, to increase the level of sociality and promote self-expression, a newly systematic program in the dance education curriculums for the cheerful participation should be made. Also, well trained teachers or dance major teachers in a university should be employed as well. Lastly, the study of how the characteristic, the spirit and the methods of dancing masters affects the character and the attitude of the elementary students should be followed.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디지털·정보화 시대로 컴퓨터와 다중매체가 고도로 발달하였다.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부터 이탈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인간성 또한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Alvin Toffler(1970:47)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 적응력의 한계를 걱정하게 된다. 인간은 본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지러운 만큼 휘몰아치는 변화의 세계는 인간 적응력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다. 그 테스트를 견디기 어려울 때 인간에게는 무력감과 허탈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화 있게 발달하고 또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이상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손경순(1982:54)은 무용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예술적 소질을 의도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개발하고 학습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전과 변화를 유도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무용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올바른 인격형성의 교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송수남(1993:125)은 무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정상적인 육체의 발달, 리듬감, 공간의

형성, 즉흥능력, 그리고 사상과 감정의 풍부한 표현력의 발달을 꾀하는 육체적, 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성을 신장시키고 자아를 확립하여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타협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심미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심미적 가치 등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용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학자들에 따른 견해가 있지만 정범모(1971)는 사회성이란 사회활동과 집단 생활을 즐기며, 친구가 많고 활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돌이 적은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무용교육이 사회성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예술적 소질을 의도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신체적, 지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원만한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에서 미술을 학습하는 것이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며, 음악을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듯이 무용을 학습하는 것이 꼭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무용교육은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에 보다 넓고 보다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무용교육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은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무용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무용교육에 따라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무용전담교사에 의해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집단과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집단간의 사회성 발달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무용교육 시행여부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학교무용교육 흥미여부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무용교육에 의한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넷째, 학년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무용교육에 의한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학교무용교육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학교무용교육 유무에 따른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대전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무용전담교사에 의해 무용교육을 교육과정대로 실행하고 있는 3개 학교와 무용전담교사가 없어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3개 학교의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무용교육 시행학교와 미시행 학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각각 50명을 선정하여 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회수비율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학교 지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학생들이 성의 없게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교사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여 작성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학교 및 학년별 설문대상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배포 현황

학교무용교육 시행여부	사례수(N) &(백분위)			전체 합계
	4학년	5학년	6학년	
시행학교	50(16.7%)	50(16.7%)	50(16.6%)	150(50.0%)
미시행학교	50(16.7%)	50(16.7%)	50(16.6%)	150(50.0%)
합 계	100(33.3%)	100(33.3%)	100(33.4%)	300(100.0%)

2. 측정도구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무용교육이 사회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무용전담교사에 의해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집단과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초등학생집단간의 사회성발달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론적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Scott(1965)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Personal Value Scales”를 기초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새로 구성된 사회성 발달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22개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세부적인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성, 학교, 학년을 질문하였다.

(2) 무용교육 참가

학생들의 학교무용교육에 대한 흥미와 수업외 무용교육 참가여부에 대하여 각 1문항씩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문항수
개인적 특성	성, 학교, 학년	3 (각 1문항)
무용교육 참가	학교무용교육 흥미유무 수업외 무용교육참가유무	2 (각 1문항)
사회성 요인	인내력(문항 1, 2, 3, 4, 5) 집중력(문항 6, 7, 8, 9) 자기 통제력(문항 10, 11, 12, 13) 건전한 태도(문항 14, 15, 16, 17, 18) 협동심(문항19 ,20, 21, 22)	22문항

(3) 사회성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할 수 있는 5가지 특성 요인으로 인내력(5문항), 집중력(4문항), 자기 통제력(4문항), 건전한 태도(5문항), 협동심(4문항)을 선택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2) 자료의 처리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한 300부의 자료처리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코딩 작업을 하였으며, SPSS 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년 및 남녀간 무용교육 흥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학년에 따른 무용흥미와 성별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무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사회성 발달 5가지 요인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결과에서 요인별 유의수준은 $p < .01$, $p < .05$ 로 구분하여 유의정도를 설명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학교무용교육에 의한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무용전담교사에 의해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이 시행되는 초등학교 학생집단과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학생집단의 두 그룹을 중심으로 차이검정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성별, 학년, 무용교육의 흥미여부에 따라 사회성 발달 특성간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검정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1.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1) 학년간 무용교육에 대한 흥미

학년에 따라 무용교육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표 3>은 학년간 무용교육에 대한 흥미여부에 대하여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무용교육의 흥미여부에 대한 질문에 300명중 흥미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4학년 37명(12.4%), 5학년 69명(23.1%), 6학년 51명(17.1%)으로 총 157명(52.5%)이고, 반면 흥미

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4학년 63명(21.1%), 5학년 30명(10.0%), 6학년 49명(16.4%)으로 총 142명(47.5%)이며 1명은 많은 문항을 응답하지 않아 결측처리 하였다.

표 3. 학년간 무용교육 흥미여부 결과

구 분			학년			전체
			4	5	6	
무용 흥미	없음	빈도	37	69	51	157
		무용흥미의(%)	23.6%	43.9%	32.5%	100.0%
		학년의(%)	37.0%	69.7%	51.0%	52.5%
		전체의(%)	12.4%	23.1%	17.1%	52.5%
	있음	빈도	63	30	49	142
		무용흥미의(%)	44.4%	21.1%	34.5%	100.0%
		학년의(%)	63.0%	30.3%	49.0%	47.5%
		전체의(%)	21.1%	10.0%	16.4%	47.5%
전체의 빈도		빈도	100	99	100	299
		무용흥미의(%)	33.4%	33.1%	33.4%	100.0%
		학년의(%)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33.4%	33.1%	33.4%	100.0%

2) 남녀간 무용교육에 대한 흥미

성별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무용교육에 대한 흥미 차이를 밝히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무용교육의 흥미여부에 대한 질문에 300명중 흥미가 없다고 대답한 여학생이 55명(18.4%), 남학생이 102명(34.1%)으로 총 157명(52.5%)이고, 반면 흥미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여학생이 110명(36.8%), 남학생이 32명(10.7%)으로 총 142명(47.5%)이며, 설문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1부는 결측처리 하였다. 학교무용교육에 대하여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보다 많은 빈도의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녀간 무용교육 흥미 차이

구분			성별		전체
			여학생	남학생	
무용 흥미	없음	빈도	55	102	157
		무용흥미의(%)	35.0%	65.0%	100.0%
		학년의(%)	33.3%	76.1%	52.5%
		전체의(%)	18.4%	34.1%	52.5%
	있음	빈도	110	32	142
		무용흥미의(%)	77.5%	22.5%	100.0%
		학년의(%)	66.7%	23.9%	47.5%
		전체의(%)	36.8%	10.7%	47.5%
전체의 빈도		빈도	165	134	299
		무용흥미의(%)	55.2%	44.8%	100.0%
		학년의(%)	100.0%	100.0%	100.0%
		전체의(%)	55.2%	44.8%	100.0%

3)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성별 구성비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남녀구성은 전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학년별 남녀구성비를 보면, 설문에 응한 각 학년 100명의 학생 중 4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43명(43.0%), 여학생이 57명(57.0%)이었고, 5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44명(44.4%), 여학생이 55명(55.6%)이었으며, 6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47명(47.0%), 여학생이 53명(53.0%)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남학생이 134명(44.8%), 여학생이 165명(55.2%)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또한 설문에 무성의하게 응답한 1명은 결측처리 되었으며, 세부적인 학년에 따른 성별의 구성비는 <표 5>와 같다.

표 5. 학년에 따른 성별의 속성

구분			성별		전체
			여학생	남학생	
무용 흥미	4학년	빈도	57	43	100
		학년의(%)	57.0%	43.0%	100.0%
		성별의(%)	34.5%	32.1%	33.4%
		전체의(%)	19.1%	14.4%	33.4%
	5학년	빈도	55	44	99
		학년의(%)	55.6%	44.4%	100.0%
		성별의(%)	33.3%	32.8%	33.1%
		전체의(%)	18.4%	14.7%	33.1%
	6학년	빈도	53	47	100
		학년의(%)	53.0%	47.0%	100.0%
		성별의(%)	32.1%	35.1%	33.4%
		전체의(%)	17.7%	15.7%	33.4%
전체의 빈도		빈도	165	134	299
		학년의(%)	55.2%	44.8%	100.0%
		성별의(%)	100.0%	100.0%	100.0%
		전체의(%)	55.2%	44.8%	100.0%

2. 학교무용교육 시행여부에 따른 사회성발달 차이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무용전공교사에 의해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과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학생들 간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사회성발달 측정항목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학교무용교육 시행여부에 따른 사회성 발달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성 발달 측정 요인 중에서 인내력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건전한 태도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협동심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집중력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성 특성인 인내력,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협동심은 학교 무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T값이 1.645를 갖는 집중력도 학교무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무용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집단이 받고 있지 않는 초등학생집단에 비하여 사회성발달 5개의 요인 중에서 4개의 요인: 즉 인내력, 자기 통제력, 건전한 태도 및 협동심 경향 요인의 유의수준($p < 0.01$, $p < 0.05$)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무용교육의 시행여부에 따라 집단간에 사회성 발달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은 최선화(1997)의 연구는 무용학습 경력에 따른 사회성 발달에 관한 요인 분석 결과 무용교육에 의해 인내력, 집중력, 자기통제력, 협동심이 향상되었으나, 건전한 태도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나타나 사회성 요인 중 집중력과 건전한 태도에서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지만 이러한 차이는 학교무용교육과 전공무용교육의 내용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고 무용교육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양춘호 외(2000)는 전북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 결과 무용 경력이 길수록 초등학생들의 사회성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사회화 과정은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어나며, 학교무용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별 또는 집단간의 접촉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성을 길러 주고 바람직한 사회화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한태룡(1998)의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연구에서 스포츠 참가자가 비참가자보다 사회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김태형(1998)의 초등학교 아동의 체육활동 참가 경험이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송수남(1993)의 무용교육은 정상적인 육체의 발달, 리듬, 공간의 형성, 즉흥 능력 그리고 사상과 감정의 풍부한 표현력의 발달을 꾀하는 육체적, 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성을 신장시키고 자아를 확립하며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타협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지지하는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 학교무용교육 시행여부에 따른 사회성 요인별 T-test 결과분석표

요인	시행여부	N	M	SD	F	df	T
인내력	시행	146	3.4041	.4600	1.868	294	6.452*
	미시행	150	3.0520	.4785			
집중력	시행	149	3.7399	.4827	8.594	279	1.645
	미시행	150	3.6333	.6290			
자기 통제력	시행	147	3.7602	.5084	2.247	293	2.382**
	미시행	148	3.6081	.5855			
건전한 태도	시행	148	3.4851	.4933	.164	293	4.570*
	미시행	147	3.2150	.5219			
협동심	시행	149	3.7634	.5811	.006	295	2.667*
	미시행	148	3.5811	.5971			

주) t값은 절대치이며, 유의수준은 * p<.01, ** p<.05

3. 학교무용교육 흥미여부에 따른 사회성 발달 차이 분석

학교무용교육에 대한 흥미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용교육 흥미여부에 따른 사회성 요인별 차이를 보면 인내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협동심에서는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집중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성 특성인 인내력,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및 협동심은 무용교육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 흥미가 없는 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T값이 0.461을 갖는 집중력도 무용교육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 흥미가 없는 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무용교육에 흥미가 있는 초등학생집단이 흥미가 없는 학생집단에 비하여 인내력, 자기 통제력, 전전한 태도 및 협동심 경향 요인의 유의수준(p<0.01, p<0.05)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무용교육의 흥미여부에 따라 집단 간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학교무용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집단과 받지 않는 초등학생집단의 사회성 요인 분석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박경수(1993)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연 체험 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학교무용교육에 흥미가 있는 초등학생집단이 흥미가 없는 초등학생집단에 비하여 사회성 발달 요인의 P값과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무용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 올바른 생각과 행동, 서로 돕는 마음의 경향 등 사회성 발달의 요인들이 고루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학교무용교육 흥미여부에 따른 사회성 요인별 T-test 결과분석표

요인	흥미 여부	N	M	SD	F	df	T
인내력	없음	155	3.1587	.4757	.971	293	2.366**
	있음	140	3.2957	.5187			
집중력	없음	157	3.6720	.5745	.682	296	0.461
	있음	141	3.7021	.5525			
자기 통제력	없음	153	3.5980	.5599	.081	292	2.794*
	있음	141	3.7766	.5334			
건전한 태도	없음	152	3.2632	.4982	.787	292	2.982*
	있음	142	3.4437	.5396			
협동심	없음	154	3.5844	.5639	1.650	294	2.669*
	있음	142	3.7676	.6172			

주) t값은 절대치이며, 유의수준은 * p<.01, ** p<.05

4. 성별에 따른 사회성 발달 차이 분석

초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사회성 발달의 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T-test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사회성 요인별 차이는 인내력의 P값이 .498, 집중력의 P값이 .323, 자기통제력의 P값이 .377, 건전한 태도 P값이 .548, 협동심의 P값이 .863으로 5가지의 요인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른 사회성발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2001)은 창작무용학습 경험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회성 요인 중 집중력, 자기통제력, 협동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인내력과 건전한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포츠 참가 경험은 남녀 모두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여 주는 하지원(1993)의 연구는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학생 위주로 이루어졌던 학교무용교육이 이제는 남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표 8. 성별에 따른 사회성 요인별 T-test 결과분석표

요인	성별	N	M	SD	F	df	T	P값
인내력	여	163	3.2429	.4644	1.150	293	0.679	.498
	남	132	3.2030	.5448				
집중력	여	164	3.6540	.5003	5.335	296	0.990	.323
	남	134	3.7201	.6283				
자기통제력	여	163	3.7101	.5548	.099	292	0.884	.377
	남	131	3.6527	.5526				
건전한 태도	여	163	3.3669	.4955	.600	292	0.601	.548
	남	131	3.3298	.5618				
협동심	여	164	3.6768	.6086	1.317	294	0.173	.863
	남	132	3.6648	.5819				

주) t값은 절대치이며, 유의수준은 * p<.01, ** p<.05

5. 학년에 따른 사회성 발달 차이분석

초등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사회성 발달의 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인내력의 P값이 .689, 집중력의 P값이 .139, 자기통제력의 P값이 .534, 건전한 태도 P값이 .459, 협동심의 P값이 .356으로 5가지의 요인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학년간의 사회성 발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원(1999)은 경력별 무용전공 여중생의 사회성 특성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력별에 따른 사회성 특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학년간이나 경력별 간에는 사회성 발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9. 학년에 따른 사회성 요인별 One-way ANOVA 결과분석표

요인	학년	N	M	SD	P값
인내력	4	99	3.2525	.4310	.689
	5	99	3.2323	.5036	
	6	98	3.1918	.5627	
	전체	296	3.2257	.5007	
집중력	4	100	3.7075	.4963	.139
	5	100	3.7525	.5887	
	6	99	3.5985	.5921	
	전체	299	3.6865	.5625	
자기통제력	4	99	3.6894	.4779	.534
	5	99	3.7247	.5686	
	6	97	3.6366	.6071	
	전체	295	3.6839	.5528	
건전한 태도	4	99	3.3737	.4505	.459
	5	97	3.3814	.5205	
	6	99	3.2970	.5941	
	전체	295	3.3505	.5246	
협동심	4	99	3.7298	.6015	.356
	5	99	3.6793	.6030	
	6	99	3.6086	.5805	
	전체	297	3.6726	.5951	

주) 유의수준은 * $p < .01$, ** $p < .05$

이상을 종합해보면 학교무용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의 사회성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인내력,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협동심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중력만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무용교육의 흥미여부에 대한 사회성을 요인별로 살펴 본 결과도 인내력,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협동심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중력만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이나 학년간의 사회성 발달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로 육완순 외(1992:37)는 무용을 통해 개인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를 기른다고 말하며 무용이 사회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으며, 무용은 팀워크, 협력, 참여 등 집단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성격을 육성한다고 하였다. 한

편, 김인형(1998:54)은 무용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무용가와 운동선수 뿐 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용학습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효과 중에서 사회적 기능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 상호작용, 다른 사람에 의해 던져진 전제에 의한 행동, 자신의 전제에 의한 행위나 단체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 고려된 상호간의 배려, 지도력의 교환, 소속감, 친밀감, 의사소통 등이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을 본 연구결과에서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무용내용을 강조하였다(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다시 말해서 학교무용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무용을 통하여 인내력,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협동심을 길러주어 이러한 능력들을 포함하는 사회성의 배양에 무용이 그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력을 형성시키지는 못하였으므로 집중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내용을 무용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교육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무용의 교육적 가치 중에서 사회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학교무용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의 사회성 특성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학교무용교육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 무용전공교사에 의해 교육과정대로 무용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3개 학교와 무용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3개 학교의 4~6학년 학생 중에서 300명을 조사대상으로 표집 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사회성 설문지를 가지고 인내력, 집중력,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협동심 등을 측정하였다. 얻어진 자료는 SPSS 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년 및 남녀간 무용교육 흥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학년에 따른 무용흥미와 성별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무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사회성 발달 5가지 요인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결과에서 요인별 유의수준은 $p<.01$, $p<.05$ 로 구분하여 유의정도를 설명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학교무용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의 사회성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인내력,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협동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학교무용교육이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학교무용교육 흥미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인내력, 자기통제력, 건전한 태도, 협동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학교무용교육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사회성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성별이나 학년간에는 사회성 특성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교무용교육 시행여부와 흥미여부는 사회성 특성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성 형성의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학교무용교육은 성장발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개인의 성장과 다른 사람에 의해 던져진 전제에 의한 행동, 상호간의 고려된 배려, 리더십의 교환, 소속감, 친밀감, 의사소통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역할 및 태도를 사회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을 대전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보편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요인을 학교무용교육여부와 흥미여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성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두었으나,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회성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무용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의 집중력이 미흡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밝히고 보완할 수 있는 후속의 연구는 물론, 무용을 지도할 때에는 집중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내용을 무용 무용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학교무용교육에 흥미가 있는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 수준이 흥미가 없는 학

생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무용교육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지도방법을 모색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시설 및 교과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지도능력이 부족하여, 무용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용수업에 대한 지원과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현직 교사에게 무용연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무용교육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에서는 현재보다도 많은 시간의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전문교사의 질 높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교무용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선(2001), “창작무용학습경험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형(1997), “무용과 스포츠 사회화를 통한 무용인과 운동선수들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제14호, 41-56.
- 김태형(1998), “체육활동정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 박경수(1993), “청소년단체활동과 사회성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진원(1999), “무용교육이 여중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경순(1982), “무용교육의 필요성과 무용교육과정의 모형설계의 방향 모색”, 한국무용의 연구 제1집, 54.
- 송수남(1993), 무용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연사.
- 양춘호·김상두(2000), “초등학생의 무용학습 참여기간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4호, 95-103.
- 육완순·이희선(1992), 무용교육과정, 서울: 금광.
- 정범모(1971), 인성검사법 요강, 서울: K. T. C.
- 최선화(1997), “무용학습경력이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지원(1993), “아동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교

육인적자원부.

한태룡(1998),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Alvin Toffler(1970), 미래의 충격, 장을병(역, 1990). 범우사.